

48 이분법을 넘어서라

- 탈구축(脫構築)은 쉽게 말해 이항대립(二項對立)의 구조를 무너뜨린다는 뜻이다.

자크 데리다에 의하면 서양 철학은 '선과 악', '주관과 객관', '신과 악마'와 같이 우열 구조를 전제로 발전해 왔지만, 탈구축에서는 이러한 우열의 구조 자체가 갖는 모순성을 밝힘으로써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틀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반증 사실을 가지고 반론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주장하는 논고의 내부적인 모순을 공략함으로써 반론하는 방법이다. 무예로 말하자면 상대의 힘을 이용해 상대를 쓰러뜨리는 합기도 같은 비판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

- 레비스트로스는 사르트르가 내세운 '새로운가 낡았는가?'하는 이항대립에 대해, 그 이항대립이 내포하고 있는 '서양은 진화하고 있는 반면에 그 외 지역은 미개하고 열등하다는'는 설정 자체가 틀렸다고 공격했다.

- 탈구축의 기본적인 사고관은 이항대립의 구조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레비스트로는 사르트르가 제시한 것은 발전과 미개의 이항대립이며, 사람들은 주체적으로 사회에 참여함으로써 역사를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르트르가 제안한 발전과 미개라는 이항대립 구조 자체에 유럽의 오만함이 드러나 있다고 비판하고 이를 무너뜨렸던 것이다. 이러한 그의 비판은 탈구축의 기술을 이용한 것이다.

- 이항대립 구조는 매우 편리해서 기업 경영이나 실제 사회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정리할 때도 자주 사용된다. 강점과 약점이나 기회와 위협 등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구조 설정은 오히려 사고의 폭을 제약하기도 한다. 그럴 때는 이항대립의 틀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 환골탈퇴하는 '탈구축'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